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4차 홍해작전 개시

“은혜와 질서”를 주제로 6월 6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는 오는 6월 6일부터 16일까지 제4차 홍해작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제4차 홍해작전은 이종운 위임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은혜와 질서”라는 주제 아래 11일간 진행된다. 참모본부(참모장 김은호 장로)는 홍해작전이 하나의 연례행사가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새생활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는 주제 성구와 “신앙 질서 회복”, “창조 질서 회복”, “천국시민 질서 실현”을 행동강령(생활지침)으로 정하였다.

홍해작전에서의 승전을 위하여 참모본부는 5월

◆ 주요행사 안내

● 새벽기도회

- 시 간 : 오전 5시~6시
- 강 사 : 이종운 위임목사
- 찬 양 : 6월 6일 : 교역자, 장로부부찬양대
6월 7일 이후 : 연합찬양대
- 집회 후 옥외 찬양 : 대학부, 청년 1·2·3부, 각 찬양대, 고등부 싱어 룡팀, NMC

● 금식일 지정

- 6월 14일 해 있는 동안 전교인 금식
- 금식미는 헌금으로 드림

● 제1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

- 일 시 : 6월 6일 오전 5시~10시 30분
- 실천사항 : 교회 내의 환경정리 (대청소)
- 대 상 : 23개 교회학교 교사·학생, 18개교 구 산하 전교인, 11개 찬양대 대원
- 행 사 : 교회학교별 그림그리기, 글짓기, 포스터 제작, 표어짓기

● 제2차 천국시민 총동원의 날

- 일 시 : 6월 16일 오전 5시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예비새벽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 기도회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가하여 이번 홍해작전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

- 대 상 : 32개 교회학교 교사·학생, 18개 교구 산하 전교인, 11개 찬양대 대원
- 새벽기도회시 청찬예식 거행

● 천국시민 영성잔치 (특별세미나)

- 일 시 : 6월 9일 오후 7시
- 장 소 : 본당 • 주 제 : 신앙과 질서
- 홍해작전 진군예배 (시작예배)
- 일 시 : 6월 2일 오후 7시 • 장 소 : 본당

● 승전감사예배

- 일 시 : 6월 16일 오후 7시
- 장 소 : 본당 • 경과보고 : 기획참모

● 문서전도운동 전개

- 방 법 : 국내외 흩어져 있는 충현교회 출신 성도와 해외 선교사에게 사랑의 편지, 은혜의 편지, 전도의 편지를 쓴다.
- 대 상 : 교회학교 학생 및 남녀 전도회, 세계선교위원회

● 사랑의 집 착공예배

- 일 시 : 6월 6일 오전 7시

■ 어버이주일 메시지

어머니의 사랑 가이없어라

한 사회의 심장부는 가정이고, 한 가정의 심장부는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모성이 부패하고 병들면 가정과 사회도 따라서 부패하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모성이 건전하고 성스러울 때 그 가정과 사회는 밝고 신전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성은 실로 강하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모성이 바로 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모성의 힘은 거룩한 힘이고 창조적인 힘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고통스런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야기를 놓기 위해서는 문턱이 호물호물 해져야 한 고비를 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은 어머니의 생명을 내건 고통을 통해서만 창조되기 때문에 옛날 어머니들은 애기를 낳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여 땀을 위에 맺어 놓은 고부신작을 다시 한 번 들어켜 보고 들어갔답니다. 해산의 수고 그것은 실로 모성만이 가진,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창조의 고통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것을 배운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인내의 표본이십니다. 특히 영고에 저들은 한국의 어머니들로부터 우리는 모성애를 감지하게 되고, 숙연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인내심 때문입니다. 지집을 와서 시어머니의 학대로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몰이해와 겹쳐지는 경제적인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온갖 굴욕을 견디어낸 우리의 어머니들은 안고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주름잡던 의협심이 강한 엄격정은 어머니 없이 보려고 우는 어린 첫머리를 달래다 못해 땅바닥에 뒹뒹이치고 앓았다는 일화는 설교도 하찮은 일 같지만 보려고 우는 아이를 끝까지 달래고 얼르면서 키울 수 있는 것은 모성의 인내력이고, 어머니가 아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는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분이라면 어머니 같은 다른 분을 높이 보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요, 또 내 자신의 내 자녀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가슴 위에 꽃 한 송이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연중 가정행사로 지내지 않고 뜨거운 감사가 넘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약속있는 첫 계명을 담은 여생에 이루어 지는 축복의 가정들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5. 5

이 중 윤 목사

9/ 충현세계선교연구원 설립

6월 16일 개원 예배

우리 교회는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고 선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충현세계선교연구원(원장 이종운 위임목사)을 설립하였다.

이 선교연구원은 선교사(자비량 선교사) 희망자, 이젠·여행·교육·취업 등으로 해외 체류 및 거주자, 기타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교에 관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및 재정 후원회를 구성하며, 전포인선교사·평신도선교사·청소년선교지도자·선교

후원자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충현세계선교연구원은 6월 16일 개원하여 1년 과정으로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초·중·고 301호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 제1기 선교연구원생 모집

- 자 격 : 성인반 (대학생·청년·장년)
- 기 간 : 5월 1일~5월 31일
- 접 수 처 : 사무국 행정과(초석관 102호)
- 면 점 : 6월 1일~6월 4일
평일 : 오후 7시~10시
주일 : 오후 3시~6시
- 면접장소 : 선교관 406호

홍콩에 지교회 설립

지난 4월 28일 설립예배를 드린 홍콩충현교회 성도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당회는 지난 5월 2일 그 교회를 우리 교회 지교회로 승인하였다.

홍콩충현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10시에는 어린이·중·고등부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게 된다.

지난 5월 3일과 4일에는 온 교인들이 교회를 위한 특별 금식 기도회를 갖고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에 담임교역자의 청해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들을 통하여 중국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제2회 김치(KIMCHI) 세미나 안내봉사자 모집

세계 선교와 교회 성장을 위한 한국연구원(KIMCHI)은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김치(KIMCHI) 세미나를 위해 봉사할 분을 찾습니다.

1. 봉사내용 : 회화·번역(영어, 중국어), 영접, 관광 안내
2. 봉사기간 : 5월 28일~6월 7일
3. 신 청 : 사무국 행정과(초석관 102호)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12:41-43)

이사야가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 이니라”(요 12:40)고 말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1. 이사야의 발견

첫째,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시야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타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본 영광에 둘러싸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재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두는 자는 내가 그를 노여워하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출 20:4). 또 “너희 몸이 주의 몸이 된 것을 잊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가득차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6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창화(唱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성도들이 하

남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와 섬김, 봉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스랍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영광 중에 둘러싸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사 6:5)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의로운 분이신데, 그분 앞에 서고 보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망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본문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면, ‘믿는다, 드러낸다, 사랑한다’라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관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사람들을 과연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출회(出會)를 당한다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 다. 출회를 당하게 되면, 교회와 가정에서 쫓겨나는 것만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대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루지 않고 싼값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

다. 이것은 자기의 전부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를 지우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으로 보내시고 고통과 죽음을 하사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육신, 사망,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해어질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3. 사람의 영광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관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출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우리들은 그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후에는 잃어버릴 것, 일시적인 것으로 인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관원들이 출회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신앙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스러운 일입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가치를 소중히 하고 우선시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사라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과

할 일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을 보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위대한 순간입니다.

셋째,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2. 예수님의 요구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렐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도록 봉사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대한 찬양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관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출회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저

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엄청난 값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구원을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았습니 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한 하는 값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와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용서를 받은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이시니 용서를 해주셨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절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 없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받게 되는 은혜는 매지 밭에 검추어진 보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

독자의 난

●●●●●

자녀를 키우는 전문직업인을 구합니다

김 광 신 장로(기획위원)

금년에도 어린이주일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 열망은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식을 키우는 일에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우를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없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자식양육가를 구해봅니다. 어쩌다가 이런 직업까지 요청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연가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의 구석구석을 뒤져보아도 존경받던 임금도, 위대했던 선지자도 성공적인 아버지로는 일생을 마친 경우가 드물다.

아! 정말 우리 모두는 어두운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겁게 닫힌 문을 누가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전혀 궁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찬란한 과학문명시대를 자랑하는 21세기를 향해 달리면서도 우리 속사람은 전혀 전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권을 자청하고 있고 포기를 밥먹듯 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번쩍이는 불빛으로 그 위엄

을 자랑하는 교회들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희망을 걸었던 그 아름다운 꿈도 과거사로 끝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고 끝내기 위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 속에는 해결의 묘약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길을 묻고 답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이유를 잘못 깨닫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출세를 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다. 내 것으로 영원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맡아 기르는 청지기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고 내 배정에 따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의 아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부터 자식을 양육하는 전문 직업인이 되고자 합니다. 내 자식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의 교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가르쳐 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5월은 “방금 찬물에 세수를 하고 일어난 스무살 처녀의 얼굴”과 같습니다.

싱싱하고 푸르른 계절의 여왕 5월에 우리 총현교회에서는 21일 잠실 올림픽 제1체육관에서 제3회 총현올림픽을 개최하려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88년 세계의 건각들이 모여서 화합과 우정을 나누며 땀흘리던 그 열기의 현장인 올림픽 경기장에서 총현올림픽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현교회는 2만여명이 넘는 성도가 매주 출석하는 대형 교회인 까닭에 같은 부서나 교구가 아닌 이상은 좀처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올림픽이야말로 전 총현인이 한 곳에 모

여서 우리 전체의 모습을 따라보며 서로의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유치부 어린이부터 소망부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한 분의 성도도 빠짐없이 총현올림픽에 참석하여 우리의 하나됨과 지체됨을 뜨겁게 확인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의 주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6:2)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왼팔이 부러졌으면 왼팔이 다 나올 때까지 오른팔이 왼팔의 뭉까지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나누고 배

우리 교회 조숙진 집사(제4교구 AID 2 다락방장)가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서울시장 표부상을 수상하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87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했고 현재는 장년부 교사와 다락방장으로 수고하시는 조숙진 집사는,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갖은 수발을 드는 일을 18년 동안 계속했다. 18년 전 고남준 성도(우리 교회 출석)와 결혼한 조집사는 불신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남편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물질을 치셔서 갖고 있던 집을 가져 가시고 7년 동안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14번

씩이나 이사하는 고생을 겪었고 지하실 단칸방에서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했다.

조 집사의 전도로 드디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조 집사의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병구완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다. 87년부터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총현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남편 되시는 고남준 성도도 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두 명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고통도 감수했던 조 집사는 시어머니를 매일 40분씩 두 차례 운동을 시켜드리고 남편의 회복도 돕는 바쁜 중에도 동네에서는 반장과 동대표의 일도 맡아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축복으로

88년에는 집을 장만하게 되었고 남편의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었다.

18년간 지극히 모시던 시어머니는 조 집사가 늘 기도해오던 대로 지난 3월 17일 고통없이 편안히 하늘 나라로 가셨다. 조 집사는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의 임종은 온 식구들이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다고 하였다.

고재일(고1), 정일(중3), 이렇게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조 집사는 누구나 해야 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시부모 모시는 일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알려지고 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부끄럽다고 겸손해 하며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18년을 한결같이

-서울시장 표부상 타는 조숙진 집사-

바른 생활 시간에

오늘 학교에서의 일입니다. 둘째 시간은 바른 생활 시간이었습니다. 바른 생활 시간에는 우리들이 더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하고 부처가 어떻게 똑같아요?”

“응, 하나님이나 부처나 다 똑같이 훌륭한 분이란다.”

“선생님! 부처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은 신이고 부처는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아요?”

“아, 부처도 살았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천국에 가 있을거야.”

“부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이 영 석 학생(초등1부) 선생님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부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하고요.

제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속에서 기쁘게 마음을 다하는 일체감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쁨을 베풀어 표현하고 뱃살하는 현장이 되어서 쾌락하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어 우리의 남은 순례길에 데웁찬 전진이 있도록 우리 모두는 다운 가슴으로 만납시다.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해 바라봅시다. 밝아올 오월 스무 하루 총현올림픽의 그 아침에 손에 손을 잡고 역사의 현장, 올림픽 광장으로 함께 오십시오.

“모였노라! / 잠았노라! / 이기었노라!”

제3차 총현올림픽에 즈음하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송 대 근 목사(총현올림픽 집행위 지도)

풀어야 합니다. 또 오른팔뿐 아니라, 모든 지체가 고통이라는 짐을 같이 해야 하듯이 운동 경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짐을 지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종목도 대부분 함께 해야 하는 것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교회란 바로 함께 짐을 지는 훈련장이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 경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생급과 연류관을 따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모든 총현인의 안목에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기를 닦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세하니”라는 바울의 말처럼 하늘에서 베풀어질 거룩하고도 기쁜 잔치를 위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표명을 향하여 땀없이 달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로부터 참여하는 성도 한 사람에게 어찌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연습을 통하여 지체됨을 확인하고 함께 달음질하여 승리의 문턱관을 따라가는 같은 소망을 품읍시다.

이 커다란 잔치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전도회 탐방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함께

-루디아전도회 제12지회-



루디아전도회 제12지회(회장 손순애 집사)는 자신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전도회이다.

이 전도회는 지난 4월 30일 강화도에 위치한 지원 교회 해병제 일교회를 방문하였다. 회원들은 떡과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군인들을 위로하고, 전도를 위하여 성경구절이 적힌 카드를 전달하였다.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표에 부흥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나가기로 회장단과 회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루디아전도회 제12지회는 교구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정기적으

로 장애인 선교단체인 무지개선교회와 임마누엘선교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맹인 양로원도 돕기로 하고 조만간 그곳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3일에는 성남시에서 개최되었던 장애인 축구 시합에 참전한 선수들에게 속내의를 격려품으로 전달하고 점심 식사도 대접하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교구내의 불우 학생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후학 양성을 위해 서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회장 손순애 집사는 "교구 부활 이후 회원들이 감소한 상태에서 회장직을 맡게 되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회원들 모두가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지원해주고 있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라며 루디아전도회 제12지회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전도회임을 은근히 밝혔다.

회장단은 매달 월례회를 마친 후, 회원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귀가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고 제안했을 때, 모든 회원들이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 제12지회 회원들이 이와 같은 전도에 대한 열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노방 전도를 함으로써 아파트촌 복음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 선교지 소식 - 독일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하여



지난 76년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독일로 파송된 육호기 선교사는 한인과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한인교회에서의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년축복성회와 제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걸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대심방을 실시하여 전쟁에 참전한 교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였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하였다.

독일 교회를 인수한 후, 현재 성전 수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일차적으로 화장실 보수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에 있으며, 소련인과 재독 터키인 전도에 필요한 성경 구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소련 타쉬켄트 지방의 피부병에 걸린 어린이에게 치료약을 전달했는데, 완쾌를 위하여 병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우리 교회 세계 선교위원회에 보내면서 증원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 기도제목

- 선교사의 건강과 영력을 위하여
- 성전 수리를 위한 재정이 풍성해지도록
- 선교에 필요한 성경 구입을 위하여

제4차 충현제자훈련 5월 30일에 마지막 훈련 미필자는 5월 중 모두 참가해야

3월 21~22일 제1차로 교역자·장로 훈련을 선두로 시작한 91년도 제자훈련이 오는 5월 30~31일 제10차 훈련을 마지막으로 91년도 훈련을 마무리하게 된다.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금년 표어를 "모범적인

교회"로 정하고 제자훈련의 초점을 모범적인 성도에 맞추었다.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는 제자훈련은 그 동안 참여한 이들에게 영적 각성과 함께 전리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깨닫게 했다.

훈련 대상(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남여 서리집사·권찰·교사·찬양대원·교회 직원) 중에 아직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5월 중에 있는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일 시		유 의 사 항
첫째 날	둘째 날	
5월 9일(목) 오후 6:30	5월 10일(금) 오후 4:50	● 훈련 대상 : 직분자 전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여 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교회 직원) ● 훈련참가신청 : (1) 신청일자 : 5월 1일~5월 25일 (2) 등록비 : 5천원(훈련복 별도 판매) (3) 접수처 : 사무국 행정과 (소석관 102호)
5월 16일(목) 오후 6:30	5월 17일(금) 오후 4:50	
5월 23일(목) 오후 6:30	5월 24일(금) 오후 4:50	● 특 기 사 항 : 직분자는 영성훈련인 본 충현제자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함 ● 훈련 장소 : 충현기도원(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방령리) ● 개인 준비 : (1) 지참물 :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 (2) 복 장 : 충현훈련복에 운동화 ● 훈련복 갈아입는 곳 : ● 남자 - 베다니홀 ● 여자 - 베들레헬홀
5월 30일(목) 오후 6:30	5월 31일(금) 오후 4:50	

청년2부 경로잔치 개최기로

청년2부(부장 장은원 장로)는 5월 11일 우리 교회의 70세 이상 성도들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열기로 하였다. 이 잔치에서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특별히 준비한 재물을 선보

이고, 청년2부 회원들이 찬양을 부르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로하게 된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도 갖는다.

유치부

반별친교회 가져

유치부(부장 장광호 장로)는 새봄을 맞아 연중행사의 하나로 반별친교회를 가졌다. 지난 5월 4일 양계 시민의 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교사와 어린이, 학부모가 친교뿐 아니라, 충현을 립할때 선보일 마스게임 예행연습도 해 매우 알찬 시간이었다.

초등1부

가족찬양부르기대회

초등1부(부장 김종구 장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준비했다. 다음 주일인 5월 12일 10시 20분부터 소석관 212호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제3차 충현올림픽

경기 세부 진행요령 및 심사 기준 해설 (1)

전국열차 릴레이

- 인 원 : 각 팀 30명(남녀 50퍼센트씩, 중·고등부 10, 청년·대학 10, 장년 10)
- 준비물 : 전국열차, 스틱, 반환질
- 대 형 : 5명이 1조가 되어 스틱을 손에 잡고 전국열차에 앉음
- 방 법 : 신호에 따라 5명이 동시에 스틱으로 바닥을 제치며 반환질을 돌아 교대함. 남녀별로 각각 경기한다.
- 심 사 : 남녀별 순위 1, 2, 3, 4등

- 점 수 : 1등 : 150, 2등 : 120, 3등 : 90, 4등 : 60(남녀 합산)

배 구

- 인 원 : 각 팀 15명(남녀 혼성 9원제, 남 : 7, 여 : 2)
- 준비물 : 배트, 배구공
- 대 형 : 배구 경기
- 방 법 : 배구경기 규칙에 준하되, 팀별로 토너먼트 방식, 예선 및 결선 21점 1세트, 11점에서 코트를 바꿈
- 서비스는 2회, 작전타임은 1회
- 심 사 : 1등, 2등, 공동 3등
- 점 수 : 1등 : 200점, 2등 : 150점, 3등 : 100점
- 대진표 : 믿음 : 사랑, 충성 : 소망, 경기 후 승자 대전

지경넙히기

- 인 원 : (1) 사랑부(전체) 및 보호자
(2) 소망부 각 팀 20명(남 : 10, 여 : 20)
- 준비물 : 고무판(앞뒷면 색깔 상이)
- 대 형 : 2인 1조로 손을 잡고 고무판 외곽에 선다(사랑부는 보호자, 소망부는 남녀 1조).
- 방 법 : 신호에 따라 한 사람이 상대 팀의 색깔의 고무판을 상대방의 손바닥에 올려주면 뒤집어서 종료 신호 후 고무판 수자를 세어서 판정
- 심 사 : 공동 1등, 공동 2등
- 점 수 : 공동 1등 : 160점, 공동 2등 : 80점(사랑부, 소망부 합산)
- 대진표 : 청(소망, 사랑) : 황(믿음, 충성)
(올림픽 집행위 제공)